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의인의 시련과 승리

(시편 73:1-2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수난에서 당한 시험과 유혹을 극복한 경건한 성도의 개선가로서 우리 모두가 불려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배우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만족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권은 거의 아삽의 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그의 자손은 레위족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 다윗 왕 때 회막에서 봉사하던 악관으로 시인이며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시편 중에 아삽의 시는 12편 있습니다(시 50, 73-83편). 본 편은 율기의 내용과 유사하나 28절에 불과한 짝막한 문장을 통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수난 사이에서 생기는 인생의 심각한 모순을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에 간명(簡明)하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1. 시인이 당한 시험과 유혹

아삽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평정을 잃게 만든 것은 물질이나 이성이나 명예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이었습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역현상을 경험한 시인은 이로 인해 상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에 회의를 느껴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2절).

악인이 흥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시편 37편과 율기에서 일어났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의 대답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율기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악한 자의 궁극적 종말은 이 세상 너머에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삽은 정직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문제의 대답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1절)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그의 근본적인 입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참이고 그래서 아삽은 시작도 끝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선벌악을 기대했던 시인에게 악인의 형통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의 진정한 문제는 그 악인을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악인의 부와 건강과 번영이 자기의 것과 비교할 때 앞서가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고 이것은 죄입니다. 악인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의 수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아삽이 악한 자에 대해 말할 것의 요약이 12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은 오늘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상을 목격하는 시인의 심사가 편할 리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질투, 자신에 대한 허탈감, 무지한 백성에 대한 분노, 하나님 섭리에 대한 회의 등으로 인하여 아삽의 마음의 지성소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성도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심적 고통만 따른다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13절)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눈을 감고 악인의 형통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아삽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의 번영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아 힘들어도 시인은 결코 자신의 그러한 고뇌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토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다(15절).

2. 전환점

하나님 섭리의 복잡성을 자신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고, 거기서 그가 품고 있는 갈등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16-17절). 불신앙으로 내리막길을 치닫다가 갑자기 전환점에 이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악한 자의 최후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주석가는 아삽이 제단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삽은 성소에서 자기의 좁고 죄악 된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의 생과 자신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아삽은 18-26절에서 3가지 중요한 영역을 다룹니다.

- ①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한 새 지식(18-20절)
- ② 자기 자신에 대한 새 지식(22-23절)
- ③ 하나님의 임재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새 지식(23-26절)

성소에 들어가 악인의 운명에 대해 새로운 통찰과 자신의 영적 이해의 결핍과 함께 영적 균형을 회복한 시인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 아삽의 마지막 간증

27-28절은 아삽이 앞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28절)고 선언합니다.

의인에게는 현세에 형통하게 사느냐 곤고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보상으로 삼고 있는 의인은 하늘에서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땅에서도 주님 외에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잔해질 경우에도 자기의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 곁에 거하게 된 행복을 만족하게 여기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결의로 본 시를 맺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먼저 악인을 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바라보며 부당한 비교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25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수난에서 당한 시험과 유혹을 극복한 경건한 성도의 개선가로서 우리 모두가 불려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배우면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만족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은혜중에 계속되는 2007 사명자 대회

11월19일(월)-24일(토) - 특별새벽기도회, 항형택 목사 강사로

2007 사명자대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사명자대회에 참여 중인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24시간 연속기도회와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열렬히 기도(다니엘 기도)로 함께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며 책임있게 민족과 교회를 위한 사명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고 있다.

사명자 대회 마지막 주간인 11월19일(월)부터 24

일(토)까지 6일간 매일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로 모든 성도들이 모인다. 이 땅을 위한 사명자로 부름 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모여 간구하게 되는 이 기간 동안은 항형택 목사(강북제일교회)가 강사로 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기도한다.

7대 안식장로, 부교역자, 직원 시무 연임 투표 통과

우리교회 당회는 규정에 따라 안식년을 가진 7대 장로(홍성주, 이복규, 이관규, 김세재, 임상헌)와 부교역자 전원, 그리고 직원 전원의 신입투표를 지난 10월31일 실시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우리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제도는 2000년도 월간 조선 연말호에서 선정한 20세기 한국교회 1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교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 시무하게 된다. 규정 3조 2항에 의거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시무투표를 하고 2조2항에 의거 신입 투표 후 재 시무는 신년도 업무 인수를 위하여 안식년도 12월1일부터 한다. 한편 당회는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하영수 장로를 10월31일자로 시무토록 하였다.

2008년도 호산나 대학 신입생 모집

11월22일(목)까지 원서 접수

우리교회가 이 나라의 소외된 장애우들을 교육하기 위해 최초로 설립한 호산나 대학에서 2008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2008년도 신입생은 창구접수와 더불어 인터넷, 우편접수를 동시에 실시하며 11월22일(목)에 마감하고 11월24일(토)에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합격자 발표는 11월30일(금)에 한다.(호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모집인원은 교양학부 12명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인 자로 장애등록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 1부, 학생사진 2장, 복지카드 복사본 1부이다. 입학시험은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2과목을 치르며 구술면접은 면접태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한다.

태신자 명단

김진락 유임호 정상수 장영순 이재민 김은지 이제희 이윤영 김성근 김성주 유태길 유미란 유현옥 유미정 도다인 권태호 안운정 권형두 박희근 양대근 양우고 김병권 김종만 김명우 장영애 조현경 이영욱 이소영 오의용 임창세 임창철 임창길 최병국 이종하 이정연 차운하 강민정 최영은 오희고 조점순 최순임 이미숙 유병훈 유수경 이순기 정용진 정상춘 정지운 정수정 구상본 이지오 김지혜 서미경 박미숙 최창화 이영애 양진환 홍성호 함신녀 신익철 윤혜열 신민정 신동민 전해원 송지영 육순자 김경미 김문기 김영기 이경서 채효선 박상희 정점숙 한석우 한해우 황노선 손성한 정은숙 손용근 손지혜 윤은영 윤대병 이주화 현도환 김광목 강성열 장승구 서원조 노영일 권용홍 하길청 정은복 안영대 이승탁 김만균 안영용 김사은 김일수 심규동 박준용 김평우 오의석 정의숙 최진철 유인철 한용희 유명선 김동현 박남식 채 황 이희원 서신석 백중렬 조근휘 조정현 조태환 최국희 이의숙 이호정 이창숙 안중근 이은미 이선희 박종근 박상환 정병준 정병민 황명순 박인규 이국락 남 용 이경환 정태문 정성훈 김운태 황경숙 지양홍 김기순 지춘규 주권민 주선영 주민영 주상원 조영옥 연미자 이기동 이금숙 임기동 이주은 홍성기 이화정 황옥녀 박선옥 박수정 김진우 한운수 이우정 양인숙 박종식 김용수 김선희 (다음 호 계속)

대선후보 초청 특강

11월5일(월) 오후 3시50분 정동영 후보

우리교회,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 연구원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 17대 대선 후보들을 초청, 특강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주간에 이어 내일(11월5일) 오후 3시50분 부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초청, 특강을 듣는다.

성도들에게도 공개되는 이 세미나에 많은 참여 바란다.

제1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1월 18일(주) 오후 3시10분 웨스트민스터홀

우리교회 사랑부는 사명자대회기간 중 지체가 부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명자의 기도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홍성주 장로 (10교구)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암울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탄압아래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찾게 하셨건만 이 나라 백성들은 정치적, 사상적으로 대립과 반목을 일삼아 한반도를 두 동강으로 만들어 남과 북이 처절한 6.25전쟁으로 잿더미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북녘 땅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백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적그리스도 정권이 세워져 60년간 독재를 자행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나라에는 이상승배와 불신앙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0년까지 이 나라 백성의 75%가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켜주시고 이일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12월 19일에는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선거를 앞에 놓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지도자에게 투표 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선거는 보수와 진보, 동부벨트와 서부벨트, 가난과 부유 같은 갈등, 대립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 화해와 용서, 공평과 자유, 정의와 질서 같은 복음적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앞당겨 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며 남과 북이 협력하여 복음의 선진국, 복음수출의 1등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

지난 10월 29일 제 32학기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이인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초청, '국가 최고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을 주제로 60분간 강연을 듣고 30분간 이종윤 목사의 질의와 대신후보들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이인제 후보

저는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칠게 도전을 하다가 두 번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10년 전에는 젊음과 패기, 용기와 열정밖에 다른 자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면서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행동한 것을 깊이 뉘우

치고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한나라당에서 거액을 받았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서 감옥소에 갇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숨도 자지 못한 다음날 몸은 오히려 갇혀있던 것보다 가벼웠고 정신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강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두 달 남짓 있는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제게 다가오는 깊은 체험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용 창출 전략을 세워 실업의 공포를 이 땅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최고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전이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선장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장이란 항로를 조절하며 배를 목적지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사회였던 우리나라를 초고속으로 산업사회로 변화시킨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20-30년 후의 일은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식 사회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거대한 지식단지를 전국 5대 권역에 만들려고 합니다.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나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로 경제를 하는 지식 경제 시대입니다. 미래는 가장 뛰어난 두뇌를 길러내어 첨단 과학기술을 만들어 산업화 할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용 창출 전략을 세워 실업의 공포를 이 땅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투자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나 환경, 분별없는 과업, 강성 노조 등을 신속하게 혁파하여 현재 4% 이하의 경제 성장을 7%까지 끌어올려 6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이로서 불경기를 끝내고 실업도 끝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이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시기였습니까? 발전의 시기였습니까? 혹은 혼란과 분열의 역주행 시기였습니까? 과거 10년간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은 큰 발전을 위한 진통의 시기, 지금은 고물가와 실업 등 민생 대혼란의 시기?

응답 - 지난 10년을 크게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도 느끼셨지만 지난 세월은 큰 발전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우리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와 개혁과 더불어 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적대관계를 구조적으로 청산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시기이며 이때 실시한 햇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방향의 시기 역시 국민의 선택이었고, 어찌됐든 개혁을 잘 수습하여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물가와 실업 등 민생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또한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2: 이 후보께서는 강연을 통해 지식사회를 말씀하시면서 미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학법이 개정되고, 교계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재개정 된바 있습니다. 새로운 사학법이 전의 사립학교법을 가지고는 개혁을 할 수 없어서 개정한 것이라면 전의 교육법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또 앞으로 지식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통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정신과 자율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응답 - 개방형 이사회라는 사학법을 만들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재단의 비리와 횡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사학의 정신과 자율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금 완화는 되었지만 사학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을 조금 손질하려고 합니다. 아주 큰 학교는 개방형 이사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나 신설 학교는 이 제도를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3: 얼마 전에 대광고등학교에서 채플을 거부한 학생의 재판 사건이 있었고, 이 재판에서 학생이 승소하여 기독교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교육을 시키려고 세워진 재단의 목적이 훼손되고 재판까지 갔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렇게 해서 과연 사학을 살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 이것은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는 학교에서 생긴 신앙 자유문제이므로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4: 학교 평준화로 학생을 그 학교로 배정한 것은 정부입니다. 학교는 기독교적 창학이념에 의해 그 학생에게 채플을 요구하였고 학생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학교가 처벌한 것을 잘못했다고 법에서 판정했습니다. 법을 무시하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강요되었던 평준화 교육도 풀어나가야 할 것

응답 - 학교 평준화로 우리나라의 지성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는데 하나의 틀에 집어넣어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발상으로 과거의 가치관을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강요되었던 평준화 교육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강연은 한기총의 최희범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쳤습니다.

나의 비전과 국가발전



이명박 후보

저의 어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태원 재래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시장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던 분이었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장이 될 때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서울 시장이 된 내가 어떻게 서울시 산하 공무원과 서울 시민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경제 살리기와 사회 화합의 두 가지로 집약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동서의 갈등, 좌파 우파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편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북만이라도 화합을 해야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경제 살리기와 사회 화합 세상은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나가는 것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창조적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 보다는 보다 쉽고 보다 안정된 직장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침체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고용 창출과 복지 등의 문제는 경제가 7% 정도는 성장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경제는 3.8%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것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7% 경제 성장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은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노사가 화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노조가 결성되며 노사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노사간의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잘못된 노조가 판을 치고 다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기업이, 노동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경제성장 7%는 충분히 올라갈 것입니다.

정책은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목표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1: 이명박후보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로 경제 세계 11위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빈곤 국가를 돕는 일은 예산의 0.05%도 못 미치며 이것은 OECD 국가의 0.30%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전문가로서 이 나라 경제 성장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의 비전은 무엇인지, 빈곤 국가를 돕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나눔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응답-섬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저의 생각에는 나눔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얼마나 많이 돕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도 국제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 걸맞는 수준으로 경제후진국을 돕는 것입니다.

질 2: 70인 목회자회에서는 이번에 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와 신앙자유 문제를 반드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 평양에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심지어 주무부서 장관의 대답은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 국민을 위한 것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로 지금 무겁게 다루어야 할 때

응답-인간에게는 기본적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권문제를 논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북한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에 복한을 개방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로 지금 무겁게 다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 3: 천 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헌신 문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 보도에 지난 10월 20일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 부인 김윤옥 권사께서 산사 순례 기도회에 참석,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으로부터 연화심이라는 범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윤옥 권사께서 그 날 행사에서 법흥사 기와에 이 후보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넣고 산사기도회에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허위이기를 바랍니다만 이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또 금년 2월말에는 이 후보가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의 천태종 태고종을 방문하여 합장 배례하는 장면이 한국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종교다원주의 추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 불교계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종교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스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님을 만날 때 합장하며 불교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단지 인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법흥사에서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오보이며 다만 행사에 참석할 때 옆에 있던 스님이 제 아내에게 얼굴이 연 7을 닮았다고 하면서 연화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자가 듣고 신문에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이유는 제 아내를 결혼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저보다 훨씬 앞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 4. 이제 조금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이 후보의 생일이면서 결혼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감사하는 날까지 되기를 소망하실 터인데 그 일은 누가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응답 - 저는 지난 번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가 목사님께 감사 기도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연은 한국기독교 학술원 원장이신 이종성 박사의 축복기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허숙(편집부)

천국시민양성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영조 집사(음악감독)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21)

우리가 한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 날 교회에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부서가 있고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우선 하여야 할 것은 예배이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이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한 시간 남짓의 여러 가지 예배 순서 중,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양의 의미는 무겁고 중요하고 찬양의 질과 성격, 그것을 준비 하는 이들의 자질과 신앙적 모습은 다른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미약한 찬양을 탓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 경건한 심성과 함께 예배의 제물로서 합당한 신령에 찬 찬양

곡으로 드린다면 말이다. 요즘 세상에 경박하고 굳건 질 거리만도 못한 상업적 음악 들이 문화와 예술이라 자처하며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은 교회에 까지 이미 깊이 스며들어 세상의 음악과 하나님 음악의 분별이 없어져가고 인간 스스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만의 흥미로운 음악을 찬양곡이라 하며 부르는 경향이 팽배해있다.

우리교회는 찬양을 드림에 있어 반성해야 할 일들이 없는지... 지금 이대로 좋은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만네리즘에 빠져 그 준비에 소홀히 할 때는 없었는지.. 그리하여 찬양의 순서가 오히려 경건해야할 예배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일은 없는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 채는 일은 없었는지...

주일 낮 예배는 물론 저녁 찬양 예배의 모든 찬양 순서는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의 발표회도 물론 아니다. 보다 예술성 있고 경건하고 신령한 찬양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시간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찬양곡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반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

돌려주시는 기독교문화의 축복 시간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에 만족 하지 않고 보다 발전된 훈련이 강화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찬양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선교를 위한 전문화된 찬양대도 필요하다.

문화의 기독교화를 앞세운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어 보고 응답을 기다릴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기 시작한 저녁 찬양예배는 이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천국시민양성 - 성경암송대회

내 영혼을 휘감는 말씀!

김진달 집사(장년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암송하기를 늘 사모하던 중 2002년 9월 주일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에 힘입어 처음으로 성경암송에 도전하였습니다.

암송대회 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암송을 하였지요. 처음 하는 암

송인데도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잘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해에 마태복음 5-7장 산상보훈을 암송할 때는 그 모든 말씀이 너무도 좋기에 일찍이 준비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도취되어 삶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쳤습니다.

말씀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2-3서, 유다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를 암송하면서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말씀없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으로 저의 죄가 너무나 크고, 헛되고 헛된 삶이었음을 깨달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알고 살아야 함을 조심스레 짚어봅니다.

성경암송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암송의 달란트를 통하여 계속 도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암송을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김필구 성도(대학부)

작년 이맘 때, 성경암송대회 은상을 받고 '내년에는 영어로!!' 라는 다소 무모한 도전의식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부족함을 아셨던지,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순례자를 3월 어느 날 무심코 펼쳐보게 하였고, '2007 성경암송대회 범위: 디모데후서 전장' 이라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반년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날로 표준발음의 기름진 성우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구해 들어보았다. 처음의 야심차던 다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말씀의 성육화'는 차치하고라도 '암송'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왔다. 영어로 뉘가를 암송해 본 것은 카투사 군복무 당

시 고작 10줄짜리 복무신조가 전부였는데... 네 장을 외워야 하는 이번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 마라톤 선수가 신발 끈을 묶는 심정으로 기도를 한 후, 먼저 한글로 디모데후서를 묵상했다.

바울의 설교가 나를 찢었다. 3장 12절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무런 박해 없이 살아온 나의 안일하고 타협적인 신앙을 돌아보게 하였고, 2장 24절은 모난 나의 성격을 반성케 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휘감았던 말씀은 4장 7-8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이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생을 마칠 때 나 또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암기를 시작했다.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졌고, 내용의 흐름을 생각

하며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니 외우는 데 속도가 붙었다. 본선 날에는 심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암송을 해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대학부 지체들,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성경암송을 강력히 권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암송하는 '과정'에서의 그 은혜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한량없고 크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God-breathed) 성경(3:16)을 그 분 안에서 호흡코자 하는(breathing in God) 모든 분들이 암송하여 내년에는 몇 배로 풍성한 성경암송대회가 되길 기도한다.

호산나학교 -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진숙 성도
(호산나 학교 학부모)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속에 열린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티공원을 비롯하여 바자회가 열리는 곳곳에 매출 좋은 자리를 배정받

으시기 위해 "점포추첨" 각 교구 간사님들의 애쓰시는 모습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만 느껴지던지요. 마치 천국시민의 그린카드와도 같이 느껴졌던 바자회의 네모난 쿠폰들... 우리아이들이 아침 등교 하자마자 길게 줄을 서서 어눌한 셈을 하나하나 세가며 쿠폰을 사서 손에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장애우들과 가족들은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들은 이미 주님께 초대되었고, 대다수의 비 장애우들 보다 주님의 초청리스트에 먼저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그것만을 큰 위로와 위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해마다 바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너무도 큰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만지심 그 자체입니다.



각 교구의 성도님들의 몸으로, 시간으로, 넘쳐나는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모습들...

만나 홀에서의 열린 음악회에서 느껴지던 따뜻하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라보심...

바자회 파장을 하며 땀을 닦고 계신 어느 권사님께 너무도 감사한 마음

에 저도 모르게 불쑥 말을 건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사랑을 받기만하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라며 인사드렸더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들이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벌써 저만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과 격려로 용납해 주시고 피부치를 대하시듯 한결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이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하늘에 속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권사님의 뒷 모습을 향해 외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사랑해요..."

특별찬양

오늘 저녁 특별찬양은 특이하게도 여성 고음끼리의 이중창이라는 매력적인 순서를 가지고 드러진다. 바로 크의 대가이자 이태리 작곡가인 A. Vivaldi 의 영광송 (Gloria) 과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F. Mendelssohn 작곡의 시편 95 편중에서 선정된 두 곡 외에 독창도 곁들여 모두 4곡으로 찬양 드린다. 우리나라 정상급 합창단인 부천시립합창단의 상임단원인 이유주 씨와 이선미 씨가 연주한다.

카자흐스탄 미르교회 헌당식

우리교회가 파송한 이은준(강혜정)선교사가 타라즈시에 새 예배당을 짓고 11일(주일) 헌당식과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교회 이중운 목사를 비롯하여 오정수, 이영기 이갑진 장로, 이영숙, 오영숙, 김명심 권사, 오유식, 김영주, 최금숙, 양정실, 현승희 집사가 8일(목)출국하여 12일(월) 귀국한다.

미르교회 예배당 신축은 우리교회 성도들이 무명으로 바친 헌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교회에 전도용 승합차도 어느 성도의 헌금으로 헌납케 된다.

동정

■ 이중운목사는 6일(화) 서울강남노회 41회 정기회에 우리교회 총대 장로 10명(오정수, 정병무, 김대호, 이영기, 성준경, 김영준, 왕경래, 서문석, 민순구, 조정식 장로)과 부목사 전원과 함께 참여한다. 8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발표회를 소집한다. 또한 8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 미르교회 헌당식 집례 차 출국한다.

■ 이사: 조옥순 권사, 홍성주 장로 · 여현진 권사(가정/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 113-1603 T. 031-796-7419

■ 하영수 장로 전화번호 변경: 010-5099-3722

■ 주간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11.4) 모세선교회(11.11)

■ 금주의 식사: 최나순 권사(범사에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7 가을 시즌 제8회 화요정오 음악회

Chamber Music Concerts with Organ

피아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



2007년 가을 시즌 제8회 화요 정오음악회 마지막 순서가 피아노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회로 준비된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정효섭 선생은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오르간 전공)를 졸업하고 이태리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립음악원 피아노 전공 수석 만점 졸업, 교향청 직속 성음악대학 피아노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을 하였고 테라모 국제 피아노 콩쿨 2위 입상의 다수 입상을 하였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박은혜 선생은 연세대, 독일민헌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결대, 언더우드음악원 강사로 정동교회, 소망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The Organist(school of organ) 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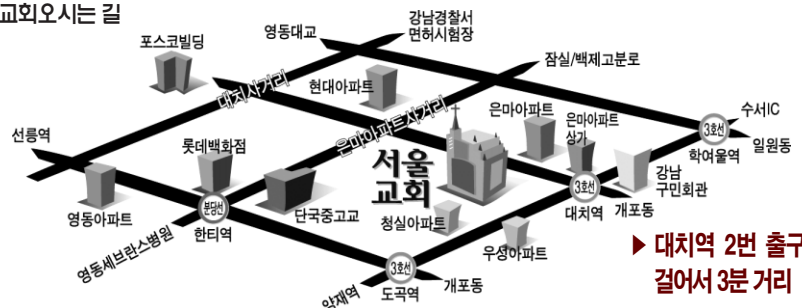
이날 연주할 곡은 P. E. Fletcher의 곡 외에 다수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사명자대회(10월7일-11월25일)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